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International History Declassified

digitalarchive.wilsoncenter.org

November 12, 1999
Pak Chang-ok Biography

Citation:

"Pak Chang-ok Biography", November 12, 1999,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Korean Section, Asian Reading Room, Library of Congress.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2374

Summary:

Soviet-Korean Pak Chang-ok encountered Kim Il Sung in an intense standoff in August 1956.

Original Language:

Korean

Contents:

- Original Scan

⑫

박창옥 선생

박창옥 선생은 1911년에 원동변강 연해주 뽀씨예트 구역 크라스끼노 시에서 탄생하시였다. 고향 도시에서 1935년에 사범전문학교를 나오시고 원동으로부터의 한인 강제이주로 인하여 까자흐 공화국 크슬올다 시에서 1939년에 사범대학을 나오시였다. 대학을 나온후 (일연)고중에서 일년간 어문학 교원으로 일하시고, 다음 1940-1942년 사이에는 크슬올다 주 칠리구역 당위원회 선전 선동부장으로 2년간 일하시였다.

1942년 8월에 소련군에 초모되어 모스크바 나리 마노브 1명칭 정찰 학교에서 일년간 공부하시고 1943년에 정찰병으로 중국 만주에 파견되어 일본 광동군 동향을 정찰할 임무를 받았다

박창옥 선생은 소련 국경부대 정찰병들의 호송에 의하여 소만국경은 용이하게 넘어갔으나 동서사방이 생소한 타향 땅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어야 인간촌이나 만나고 그에서 어떤 비밀자료를 수집하려 하였으나, 국경지대 삼림 속에서 일본 반탐정 정찰대가 어느쪽에서 나타날지 알도리가 없어 일일간 1 킬로메타도 돌파할수없었다. 그러던 도중 제3일에는 일본군에게 발견되어 추격당하게 시작되였다.

삼림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적으로 인정되고 일본 반정탐군이 되여 보였다. 또 당시 일본 광동군 반탐정부에서는 조선사람들을 증집하여 나무군이나 다른 어떤 농민으로 가장식혀 소만국경 국경 삼림속에 배

치하여 놓았으며, 또 산속에서 돼지 산전이나 가라농사 짓어먹고 사는 화전민 부분들을 매수하여 자기들의 특별 밀정으로, 련락군의 루트로 사용하였던것이다. 때문에 때로는 화전민 집을 만나도 만만하게 들어 갈수없었다. 박선생은 3일간이나 추격당하고 또 추격대원들은 때로는 전방 무목표 사격을 하는바람에 왼팔을 부상당하였다. 박선생은 본래 건강체로서 젊은 시절에 운동이나 하던 몸으로 아주 민활하게 움직이였다. 그러나 3일간이란 긴시간을 추격당하며 반은 굶어 살아온 환경에서 인제는 기진맥진하였다. 박선생은 인제는 더 앞으로 갈수없었다. 때문에 산기슭 아래에 보이는 화전민 세호동리를 발견하자 그 즉시에 걸음을 멈추고 풀속에 들어누워 속히 해가 지고 밤이 오기만 기다리였다. 마침 밤이되자 박선생은 산기슭 한집에 아래방 문전에가 주인을 찾고 "길가는 손님이 하루밤 자고 가는것이 어떠냐고" 허가를 받고 방에 들어갔다. 방에 들어가자 박선생은 벌서 그집에 두사람이 들어와 있는것을 발견하자 박선생의 생각에는 인제는 꼭 일본놈들에게 꼼짝 못하고 붙잡혔다고 생각하였다. 얼마쯤 시간이 지나자 주인은 저녁을 먹으라고 밥상을 들여왔다. 밥상을 받고 식사를 하는 도중 박선생은 그 먼저들어온 두사람중 한 사람은 어디선가 꼭 만나본 생각이 났다 저녁식사를 다 한다음 박선생은 다시 생각하니, 그 사람이 모스크바 주변 삼림속 나리마노브 명칭 경찰학교 군방에서 한번 인사없이 겨츠로 지나가는것을 본 생각이 났다. 박선생은 속생각으로 "너도 나같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여기와 단니노나" 하고 생각하였다. 박선생은 두사람중 한 사람이 밖으로 나간다음 물었다 "당신이 모스크바에서 오신 사람이 아닌가하고". 그러자 그사람은 처음에는무

정하다가 박선생이 자기내막을 실토하니, 그사람도 실토하였다. (박선생이 우연하게 사선에서 만난 그 사람은 박 니꼴라이 (조선 이름 박길남), 차후 조선이 해방된 후 인민군 공병국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웅이다) 박길남 선생도 나리마노브 명칭 학교를 나오고 벌서 일년전에 만주에 나와 공작하고 있었다. 박길남 선생은 박창옥 선생더러 "실속있는 한인 빨찌산 부대 정찰병을 만나 협동 동작을 해야되지, 그렇게 혼자 단니다가는 실패를 당할수 있다하면서, 자기가 아주 믿음직한 사람을 소개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렇게 말하자 밖에 나갔던 사람이 들어 오자 인사를 식히였다. 그 사람은 유명한 한인 빨찌산 부대 영장인 최현장군부대 정찰과장이였다. 그이의 성명은 림철 (차후 조선이 해방되자 조선인민군 105 땅크 근위사단 유경수 사단장의 후임으로 들어선 사람이다) 인사를 식힌후 박길남 선생은 림철 선생을 앉으라 하시고 박창옥선생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이 선생도 정찰임무를 받고 쏘련에서 보낸 분이라고 설명하였다 그 다음은 박길남 선생은 아주정중하게 박창옥 선생에게 말씀들이기를 "우리가 이곳에서 성과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려면 이지방 간부들에게 깊이 뿌리를 박고 사업하여야 실수가 없소" 하면서 박길남 선생은 림철선생에게 부탁하기를, "아마도 당분간만이라도 림철선생이 이 박선생을 잘 돌봐 들여야 하겠소" 하였다. 이 말이 있은후 박창옥 선생은 림철 선생과 아주 긴밀한 련락하에서 다수 경우 같이 한때로 동작하면서 2년간이란 긴세월을 그 쓸쓸하고 무시무시한 나날을 보내면서 정찰임무를 수행하며 훌대

용 무전기로 자기 본부에 타전하곤 하였다. 기간에 일제 군대가 제일 많이 주둔한 연길시에서 매일출몰서 용정, 해룡, 조양천, 목단강, 훈춘에까지 항상 김철선생의 안도에 의하여 돌아다니며 사업하시였다. 한번은 1945년 5월초순에 소만국경도시인 훈춘시에 다시 왔다가 일본놈 경찰병에게 적발되며 일행 3명은 추격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본놈은 일명이고 일행은 3명이나 되기때문에 그놈은 그렇게 내여놓고 추격하지 못하면서 도중 3명의 거동과 동향이나 살피면서 점점 갓가와 지려하면, 이 세명은 좀 걸음을 빠르게 하여 간격을 늘렸다 그러나 저녁이 되여 해가 넘어가게 되자 일본놈은 길가까이 있는 파출소에 들어가 무장군인 한명을 더 보충하였다. 이러는 사이에 박창욱 선생 일행은 방향을 바꾸어 약 십리가량 간격을 늘게한 진작이 되였다. 그러나 저녁이 지나가고 밤이 시작되자 외롱 산골길은 아주 캄캄하게 되였으며, 아주 고요하여 먼곳의 인기척도 들려오고 있었다. 때문에 먼곳에서 여러명의 추격자들이 빠른 걸음새로 따라오는것이 확연한데다 그들은 캄캄한 숲풀속에 대하여서는 맹목사격을 하군하였다. 박창욱 선생 일행은 큰길을 끌수로 잡아가기는 하나 큰길에서는 걷지 못하고 거기에서 약 200-300메타 떨어진 옆 초목들이 들어선 새길로 가게 되였다 이렇게 장밤을 가고, 가다가 일행은 맥이 진하여 좀더 깊은 숲풀속에 들어가 좀 쉬여 가려고 결심하였다. 이때에 추격하는 놈들은 그 어두운 숲을 또다시 맹목사격을 하였다.

이때에 박창옥 선생은 왼팔 어깨 죽지를 중상당하였다. 이때에 같이가던 일행 동무들은 만약경우를 위하여 항상가지고 다니는 약통에서 고약을 꺼내여 바르고 붕대로 싸매였으나 그 아픔은 기가 막히였다. 박선생은 3년전에 전투임무 수행중 역시 왼팔을 부상당하여 약 3개월간 치료했댔는데 이제 더욱히 그 팔 어께 죽지 중상을 당하고 피까지 많이 흘리고 보니 신체는 맥이 진하여 더 움직일수없었다. 박선생은 "이것이 자기의 말로"라고 생각하면서 림철선생하고 말씀하기를 인제는 자기를 여기에 남겨놓고 강인수 동무와 같이 무전기를 가지고 정찰병 루트 장소까지 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림철선생은 그것은 전혀 안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죽으면 삼명이 같이 죽어도 박선생을 이곳에 떨궈 두고는 못간다"하면서 "우리가 업고 갈터이니 근심말라고 하였다. 박선생은 이때에 속으로 눈물흘리며 3년전에 박길남 동지가 말하던것을 아주 고맙게 회상하였다. "우리의 사업에서 지방사람이나, 빨찌산 부대사람들과 긴밀한 관계가 없이는 실패를 당하고 마오"하던 그 말씀, 또 그가 친히 면목 익혀주고, 소개하여준 림철씨 참 친형보다도 낫은 사람, 내가 세상에서 살고있는 한 언제던지 잊을수없는 사주팔재에 기입된 친형, 아니, 그보다도 더 값있는 존재란것을. 참 그날 저녁에 림철씨와 강인수 씨는 박창옥 선생을 번갈아 업고 35 낄로 정찰병 중앙 루트까지 왔는데, 그 이튿날 부터 연 일주일간 두사람은 박선생을 계속업어 쏘련국경까지 호송하여, 쏘련국경 수비대에 인계하며 죽고 자기들

은 자기 빨찌산부대에 돌아와 전투임무를 수행하였다. 필자는 1957년 여름에 항공사령부 군사위원으로 일하고 있을시 림철 105 땅크사단장을 우연히 만나게 되였다. 그는 나의 사무실 (항공 사령부 사무실은 바로 105 땅크사단 옆에 놓여 있었다) 에 들어와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가 군사위원동지 박창옥 선생을 잘아는가하고 물었다. 림철 동지는 내가 쏘련에서 온사람인줄 알았기때문에 그렇게 물었던것이다. 그담에야 자기들이 박창옥선생과 같이 정찰임무를 수행하던 이야기, 부상된 박창옥 선생을 사선으로부터 업어 꺼내며 살려오때, 쏘만국경까지 호송하던 이야기를 하였다. 당시 박창옥선생은 사상검토에 걸려 부수상직에서 철직되여 마동 세멘트공장 지배인으로 강직되였을 때다. 림철 동지는 박창옥 선생에 대하여 아주애석하게 생각하며 말하기를 《그래도 박창옥 선생 만은 꼭 다시 소생할것이요》 하였다.

박창옥 선생이 당 중앙위원회 선전부장으로 계실시 그의 사업적 활약은 굉지란 위신도 대단하였다. 박선생은 원래 한인 사전, 사대를 필하시고 수년간 당계통선전 선전 계통에서 일하신 분으로, 선생의 웅변과 해설수법이 훌륭하여 청강 관중들을 마음대로 지배하였다

한번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선동-선전부장 윤군창 소장이, 박창옥 선생의 강의를 듣고 말하기를 찬출통한 웅변가 빠라 하네, "쏘련에서 조선인민에게 무상으로 선사한 5억 루블리 의, 50만톤 밀가루와 50만톤 휘발유를 운반하는데 — 그 휘발유 통을 연이어 놓으면 신의주 시에서 평양시까지 4200 킬로 거리를 3회이상 연결할수 있다 — 고 하였다. 북한 인민치고는 누구나 다 박창옥 선생을 존경

하였는데 다만 한사람만 — 반소분자거두, 반당분자 김창만이만 박창옥 선생을 미워하면서, 박창옥 선생의 사상검토에서 비판받을시 사차 전당대회에서 토론할시 "수박 겉껍질을 핥는" 선전자라고, 모욕하였다 김창만이는 친일파로서 쏘련을 아주 미워하였으며, 쏘련에서 나온사람들을 아주 미워하였다. 많은 재료들을 조작하여 사상검토시 많은 간부들을 철직처단한죄로 김창만 자체도 반당종파분자 반소분자로 몰려 중앙당선전부장 직무에서 철직되며 지방에 나가 노동사리를 하다가 죽고 말았다.

박창옥 선생은 1956년에 중앙당에서 나와 마동세멘트 공장으로 강직되여 노동사리를 하다가 전선에서 부상당한 미열로 신음하다가 다시 소생되지 못하고 1958년에 61세의 연령으로 세상을 하직하였다.

박창옥 선생은 쏘련군 정찰병으로 중국 만주 일벌을 돌아단니며 일본 관동군 눈살펴아래에서 2번 중상을 당하면서도 정찰병의 임무를 충실이하였기 때문에 쏘련정부로부터 "쏘련조국전쟁영예" 훈장 1급과 2급을 받았으며 십여개의 메달을 수여받았다. 그외에도 북한정부로부터도 "국기훈장", "자유독립훈장"과 많은 메달을 수여 받았다. 박창옥선생이 정치적으로 처단당한후 부인과 기타가족도 행방불명이 되였다. 그 먼저 쏘련에 공부하러 돌아왔던 아들딸 오누이는 현재 모스크바에서 살고있다.

1999. 11. 12 일